



「2022년 시험대비」
국어 모의고사 및 해설(1)
 | 강세진 교수 | 박문각남부고시학원

01.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깻잎 kkaenip
- ② 비빔밥 bibimpab
- ③ 떡볶이 teokboki
- ④ 홍어회 hongehoe

[정답] ④

[해설] 로마자 표기법 ♣ 난이도 하
 '홍어회'가 맞다. 'hong / eo / hoe' 라고 쓰는 것이 맞다. '홍어회'는 [홍어회/홍어회]라고 발음을 한다. '어'는 eo라고 쓰고 '회'는 hoe라고 쓰므로 꼭 외우자.

<오답 풀이>

- ① 깻잎[깻닙] kkaen / nip
 ↳첨가와 비음화는 표기에 반영된다.
- ② 비빔밥[비빔뻬] bi / bim / bap
 경음화 발음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.
- ③ 떡볶이[떡뽀끼] teokbokki
 쌍자음은 tt, kk와 같이 적어야 한다.

02.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이 옳은 것은?

- ① 일은 많은데 손이 모자랐다.(기본형: 모자르다)
- ② 그녀는 해진 치마를 기원 입었다.(기본형: 기우다)
- ③ 주는 것은 살림살이요 누는 것을 빛뿐일세.(기본형: 주다)
- ④ 시골 형님의 딸을 데려다 길러 보려고 했다.(기본형: 데리다)

[정답] ④

[해설] 문법-어미의 활용 ♣ 난이도 하
 '데리다'의 기본형은 '데리다'이다.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이다.

<오답 풀이>

- ① 모자라다(○): '모자르다'는 없는 단어이다.
- ② 기다(○): '기우다'는 없는 단어이다.
- ③ 줄다(○): 문맥을 읽어보면 '살림살이가 줄다'는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'주다'가 아니라 '줄다'로 보아야 한다.

03.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?

- ① 이 V그릇은 V귀한 V거라 V손님을 V대접하는데 V 쓴다.

- ② 사자의 V무기가 V이빨이 V듯이 V소의 V무기는 V 뿔이란다.
- ③ 바람이 V얼마나 V세계 V부는 V지 V가로수 V가지 들이 V꺾였다.
- ④ 내가 V서류를 V검토하였는바 V몇 V가지 V미비한 V사항이 V발견되었다.

[정답] ④

[해설] 한글맞춤법-띄어쓰기 ♣ 난이도 중
 '-는바'는 여기서 어미로 쓰였다. 해당 맥락을 보면,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해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 하였음을 알 수 있다. 만약에 '바'가 의존 명사로 쓰이려면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를 나타내거나, '바에는, ~할 바를, ~는 바이다'와 같은 모양으로 제시된다.

<오답 풀이>

- ① 이때 '데'는 '경우'를 뜻하기 때문에 '대접하는 V데'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.
- ② 이때 '-듯이'는 어미이기 때문에 '이빨이듯이'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.
- ③ 이때 '지'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아니므로 어미로 보아야 한다. 이때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것이 핵심이며,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말이 앞에 나타나 있는지 확인하길 바란다.

04. ㉠~㉣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음의 동화의 종류로는 ㉠ 받침 'ㄷ, ㅌ(ㅊ)'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'ㅣ'와 결합되는 경우에, [ㄷ, ㅌ]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동화, ㉡ 받침 'ㄱ(ㄲ, ㅋ, ㆁ, ㄷ, ㄷ(ㅊ), ㅌ(ㅊ), ㅍ, ㅍ(ㅑ), ㅍ(ㅑ), ㅍ(ㅑ))은 'ㄴ, ㄹ' 앞에서 [ㅇ, ㄴ, ㄹ]으로 발음하는 동화, ㉢ 받침 'ㄹ, ㅍ' 뒤에 연결되는 'ㄹ'은 [ㄴ]으로 발음하는 동화, ㉣ 'ㄴ'은 'ㄹ'의 앞이나 뒤에서 [ㄹ]로 발음하는 동화 등이 있다.

- ① ㉠: 잔디, 느티나무
- ② ㉡: 꽃망울, 감기
- ③ ㉢: 대통령, 침략
- ④ ㉣: 이원론, 임진란

[정답] ③

[해설] 표준발음법-음의 동화 ♣ 난이도 중
 해당 문제는 조건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. 받침 'ㄹ, ㅍ' 뒤에 연결되는 'ㄹ'이란 점, 따라서 '통'과 '령', 그리고 '침'과 '략', 이렇게 조건을 먼저 보고 난 다음 발음이 'ㄹ'이 [ㄴ]으로 발음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. 대통령은 [대 : 통령]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보아 'ㄹ'이 [ㄴ]으로 발음된다 할 수 있고, 침략도 역시 [침 : ㄴ]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보아 'ㄹ'이 [ㄴ]으로 발음된다 할 수 있다.

<오답 풀이>

- ① '잔디'와 '느티나무'는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'ㅣ'와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, 해당 예로 적절하지 않다.
- ② '꽃망울'은 [꽃망울]로 발음되기 때문에 가능한 예시이지만, '감기'는 받침 'ㄱ, ㄷ, ㅌ'과 'ㄴ, ㄹ' 앞이라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예로 적절하지 않다.
- ④ '이원론[이 : 원론]'과 '임진란[임 : 진란]'은 [ㄹ]이 아닌 [ㄴ]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해당 예로 볼 수 없다.

05.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?

- ① 할아버지의 안팎에 수염 자락이 날렸다.
- ② 그는 좀처럼 희노애락을 낯빛에 나타내지 않았다.
- ③ 어른께 예삿말을 쓰는 것은 공손하지 못한 행동이다.
- ④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인근 상가의 공실율을 따져야 한다.

[정답] ②

[해설] 한글맞춤법-사이시옷, 두음법칙 ♣ 난이도 중
 '희노애락'이 아니라 '희로애락'이 맞다.

<오답 풀이>

- ① '안팎'이 맞다.
- ③ '예삿말'이 맞다. 발음은 [예 : 사말]이다.
- ④ '공실률'이 맞다. '비율, 백분율'과 같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↳받침일 때만 '율'을 쓰고 나머지는 모두 '률'을 쓴다.
 ※ '율'은 (모음으로 끝나거나 'ㄴ' 받침을 가진 일부 명사 뒤에 붙어) '비율'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

06. 안긴문장이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?

- ①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떠났다.
- ② 장사는 신용을 얻음이 제일이로다.
- ③ 그는 갑자기 학생 신분임을 밝혔다.
- ④ 미정이는 어떤 사람보다 인정이 많구나.

[정답] ①

[해설] 문법-안긴문장 ♣ 난이도 상
 명사절이 관형어로 쓰였기 때문에 주성분이 아닌 부속성분으로 쓰인 것이다.

<오답 풀이>

- ② [장사는 신용을 얻음이 → 명사절, 주어(주성분)]
- ③ [갑자기 학생 신분임을 → 명사절, 목적어(주성분)]
- ④ [미정이는 [인정이 많구나] → 서술절, 서술어(주성분)]

실전 국어
 능력 향상 MASTER

국어 강세진



All-In-One 국어 [문학과 독서]+[문법]

개강일 : 2022/07/13
 시 간 : [수] 10:00~13:00 [8주]
 [목] 09:30~13:00 [8주]

All-In-One 국어 [문학과 독서]

개강일 : 2022/07/13
 시 간 : [수] 10:00~13:00 [8주]

강세진 국어 [기출 문제] 문학과 독서

개강일 : 2022/07/13
 시 간 : [수] 14:00~17:30 [8주]

강세진 All-In-One 국어 [문법]

개강일 : 2022/07/14
 시 간 : [목] 09:30~13:00 [8주]